

교 훈
참되고 바르게
즐거움고 힘차게

신목중소식

제 47 호

발행일 : 2007년 11월 13일
발행인 : 신 목 중 학 교
교장 권 칠 선
편집인 : 언어부장 이인옥

- ➔ 지도교사 : 오채영
- ➔ 편집위원 : 김다은, 김록범, 서주원, 오민영, 홍율아, 김연우, 김종인
김진모, 송형주, 이지선, 배찬경, 이민서, 이유리, 양하은
- ➔ 홈페이지 : <http://shinmok.ms.k>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 6동 902-1
- ➔ 전 화 : 제1교무실 (02) 2643-4697, 2643-6258

행 정 실 2643-5198	교무기획부 2643-4769	교육연구부 2643-4598	학 년 부 2643-5027
인문사회부 2643-4533	특별활동부 2643-4371	자연과학부 2643-4267	진로상담부 2643-5984
생활지도부 2643-5701	언어교육부 2643-6257	교육정보부 2643-6320	체육교육부 2643-6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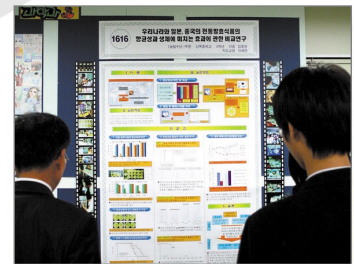
2007 신목 작품 전시회



47호 소식지 차례

교감선생님 말씀
 학교 소식 안내
 신목을 빛낸 꿈나무들
 운영위원회 소식
 교내 논술문 쓰기대회 수상작
 저작권 학생작품경연대회 수상작I
 4지구 독후감쓰기대회 수상작
 통일문화행사 소감문
 저작권 관련 토론
 특성화 고등학교 소개
 다양한 박물관 소개
 가을에 가 볼만한 여행지
 기획-신목인의 금요일 아침
 상식 퀴즈
 저작권 학생작품경연대회 수상작II

2007 신목 작품 전시회



신목 학생들에게 주는 글



이혜순 교감 선생님

작년 겨울 간부학생들과 일본으로 수련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기상변화로 일정이 다소 늦어져서 타고 가는 버스가 좀 빨리 가 주었으면 하던 참에 여행 안내를 맡으신 분 이야기가 ‘일본 기사님들은 절대로 과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과속하지 않고 항상 규정속도를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에 덧붙여서 안내자는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원칙을 잘 지킨다고 했습니다.

여행 안내를 맡으신 또 한 분의 재일교포와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자녀교육에 관한 이야기 중 하나는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기죽지 말아라.**’인 반면에 일본 부모님들은 ‘**남한테 폐 끼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주변에서 겪어 보고 듣고 느낀 여러 상황을 종합하건대 일리 있는 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한결같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에게 두 가지 모두를 부탁드립니다. **“기죽지 마세요. 그러나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세요.”** 라고. 둘 중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있게 살되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중용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인의 식사예절, 공공시설 사용예절 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금 일본인의 높은 질서의식,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 또한 수련회를 통해서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을 많이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상당한 수준의 학습능력과 재능을 갖춘 우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학생들 각자가 나의 입장과 처지, 그리고 내 갈 길을 생각하는 데 몰두하다가 종종

남에게 피해를 주고 단체생활의 흐름을 깨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공질서를 지키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남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나 또한 남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도 생각됩니다. 학생 여러분 자신들도 학교생활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선생님들께 또 주위 친구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율학습시간에 늦어서 조용한 우리 반 자율학습 분위기를 깨뜨린 적은 없는지, 다 먹고 난 과자봉지며 아이스크림봉지, 빈 캔 통을 아무데나 버리지는 않는지, 학교 규정에 어긋난 용의복장을 하고 다니지는 않는지, 소지하지 말라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는지,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수업시간 중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지는 않고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고 항의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어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는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가 서로서로 친구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예의바르게 행동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용모와 정숙하고 질서정연한 태도를 지니며, 우리의 생활 터전인 학교의 공공기물을 아끼고 더럽히지 않음으로써 즐겁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소식 안내

★★★ 저작권 집중 교육기간 (7.9~13)

저작권 집중 교육이 7월 9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교육 기간 중에는 영상물 시청, 작품 경연대회 등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저작권에 대해 좀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교내 논술문쓰기대회 (9.14)

교내 논술문 쓰기 대회가 9월 14일, 참가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인성교육실과 도서실에서 학년별로 치러졌습니다. 논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실제로 논술을 써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펼쳐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교내 체육대회 (10.12)

교내 체육대회가 10월 12일, 마라톤 행사를 중심으로 안양천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학생들은 학년별로 안양천 주변 4.65km를 완주하였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수여되었습니다. 또한 구기대회가 10월 말까지 체육시간을 통해 실시되었습니다.

★★★ 교내 통일 문화 행사 (10.8~10.12)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갖게 하는 통일 문화 행사가 10월 8일부터 한 주 동안 열렸습니다. 행사 주간 동안 전시회, 영화 상영회, 놀이교육 및 통일 토론회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통일이 앞으로 우리가 이뤄나가야 할 일이라는 점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저작권 공개 보고회 (11.6)

11월 6일 화요일,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체험하고 배웠던 저작권교육에 대한 공개보고회가 있었습니다. 11개 교과에서 공개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공개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만든 전시물들과 수업의 성과물을 보이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작권보호에 힘을 쓰는 신목인이 됩시다.

★★★ 작품전시회 (11.6~11.9)

일 년 동안 학생들이 계발활동 시간 및 수업시간, 특기적성 시간 등을 통해 이뤄낸 결과물들을 전시하는 신목 작품 전시회가 11월 6일부터 도서실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1년 동안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보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목을 빛낸 꿈나무들

※ 교외 수상

- 제53회 전국 과학전람회(농림수산부) 한국 과학기술 정보 연구원장상
3학년 9반 김충한
- 제 22회 서울 학생탐구 발표대회 동상
1학년 4반 이승준
- 강서 정보의 바다 탐구대회 은상,
서울시교육청 정보의 바다 탐구대회 탐구상
3학년 1반 최동근
- 강서 학생 탐구 발표대회

금상	1학년 4반 이승준
은상	2학년 12반 지현근

- 강서 중학생 논술대회 장려상
2학년 16반 김경원
- 강서 제4지구 자율장학 독후감 쓰기대회

최우수	3학년 1반 송인영
우 수	3학년 6반 강수현

- 2007 여름 우리말 토론크립 우수
1학년 13반 오남균
- 제4지구 지구별 사생대회 우수상
3학년 8반 송수민
- 강서 사이버 독서토론대회 우수상
2학년 7반 조상은, 2학년 8반 김연우, 2학년 16반 김경원
- 서울 학생 동아리 한마당 전시마당분야 교육감상
2학년 2반 전서영, 임주현, 2학년 8반 박진아
- 서울 중학생 토론대회 우수상
2학년 7반 조상은, 3학년 3반 이승우, 3학년 13반 홍승범

※ 교내 수상

- 도서관 이름 공모대회 최우수상
1학년 7반 최선하
- 교내 통일토론대회

최우수	3-13 홍승범
우 수	3-18 김창선, 3-6 강수현
장 려	1-16 김정숙, 2-10 강주은 3 -4 인지현, 3-9 김충한

· 교내 탐구대회

금상	1-4 이승준, 2-12 지현근
은상	1-10 이용준, 1-5 심나솔 2-4 이다은, 2-12 박주혁
동상	1-3 이연희, 1-6 엄상준 1-11 허승준, 2-9 이하영 2-10 이우현, 2-10 김범준

- 진로체험 학습 보고서 최우수상
1학년 15반 류정선, 2학년 11반 김세현, 3학년 7반 송홍주

- 저작권 관련 학생 작품 경연대회

	금 상	은 상	동 상
글쓰기	3-6 강수현	1-5 조혜리 2-13 박하은	1-14 김윤성 2-10 엄채윤 3-7 김민정
그리기	3-1 송인영	1-14 김민지 1-1 권순지	1-1 유지윤 2-7 장수지 3-5 권애린 3-10 이태경
표어 및 편지쓰기, 경고문쓰기	1-2 유다영	1-10 이예진 3-16 황희상	1-15 김이담 3-1 송준모 3-15 심은영
캐릭터 만들기	3-16 이순승	3-6 김동주 3-8 송수민	2-12 손진영 3-2 노영민 3-8 이선민

- 교내 마라톤대회 수상자

부 문	순 위	학년-반	이 름
1학년 남자	1	1-2	최형인
	2	1-6	강동원
	3	1-15	김수용
1학년 여자	1	1-4	김지원
	2	1-15	심나슬
	3	1-4	한주희
2학년 남자	1	2-9	변해준
	2	2-8	이우철
	3	2-4	박건용
2학년 여자	1	2-6	김윤아
	2	2-5	정현주
	3	2-6	이재욱
3학년 남자	1	3-18	황재환
	2	3-17	박재민
	3	3-4	오태윤
3학년 여자	1	3-7	김소연
	2	3-7	김해림
	3	3-16	윤은빈

- 교내 마라톤대회 단체 수상학급

학년	순 위	학 급
1학년	1	1-4
	2	1-2
	3	1-15
2학년	1	2-4
	2	2-2
	3	2-11
3학년	1	3-12
	2	3-17
	3	3-4

- 교내 구기대회 단체 수상학급

종 목	순 위	학 급
발야구 1학년	1	1-12
	2	1-14
	3	1-7
	3	1-11
피 구 1학년	1	1-2
	2	1-10
	3	1-8
	3	1-16
풋 살 2학년	1	2-3
	2	2-12
	3	2-8
	3	2-16
발야구 2학년	1	2-8
	2	2-1
	3	2-6
	3	2-7

알 림

신목중학교가 국내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중등부
누적 입상자 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수학 과학 올림피아드 중등부 입상자 수 (2005~2007년)		
순위	학교명	3년간 입상자수(2007년)
1	신목중	75(35)

2007학년도 신목중학교 운영위원회 소식

-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 결과 공고

- ① 학업성적관리 규정 개정(안)
- ② 1학년 수련활동 결과 보고(안)
- ③ 신목중학교 과학캠프 실시 계획(안)
- ④ 2학년 경주 수련활동 결과 보고(안)
- ⑤ 3학년 제주 체험학습 결과 보고(안)
- ⑥ 2분기 2차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결과 공고

- ① 포상규정, 학생회 회칙, 학급회 회칙 및 학생 포상규정 개정(안)
- ② 3분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 ③ 신목 과학캠프 실시 결과 보고(안)
- ④ 2007학년도 학교급식 운영 계획(안)
- ⑤ 2007학년도 학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 결과 공고

- 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추천 학생 심의(안)
- ② 2007학년도 학생회 간부수련활동 실시 계획(안)
- ③ 2007학년도 상반기 위탁급식 운영 결과 보고(안)
- ④ 비정규직 인사관리 규정(안)

※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목중학교 홈페이지 학교소식)학교운영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 교내 논술문 쓰기 대회 문제 (3학년)

-논제-

다음 글을 읽고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의 문제점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기러기 아빠의 죽음과 교육, 가족의 의미

사람들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이고, 소식 끊긴 벚꽃이 울적울적 그리워지는 요즈음 어느 ‘기러기 아빠’의 죽음은 추일서정(秋日抒情)을 더욱 애잔하게 한다. 그는 자녀의 해외 유학을 위해 6년이나 홀로 지내다가 숨진 지 닷새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평소 고혈압으로 고생하면서도 외로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술·담배를 입에 달고 다녔던 이 50대 가장은 그야말로 한 마리의 기러기처럼 가을 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중략...)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조기 유학생이 20,920명에 이르고, 유학·연수 비용으로 10조원 안팎의 돈이 지출됐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중등생이 7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러기 아빠의 규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수많은 기러기 아빠들이 돈·가족·건강 문제라는 삼중고(三重苦)를 겪으면서 언제라도 극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학교에서의 살벌한 경쟁체제가 완화되면 기러기 아빠 현상은 누그러질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 특히 영어 교육과 가족에 대한 성찰도 병행돼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를 출세시키겠다는 전근대적 이기심은 없었는지, 모국어 교육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일찍 익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설령 자녀들이 유학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더라도 긴 이별 끝에 이미 가족이 붕괴돼 버린 상태라면 무슨 값어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신문 2005.10.20

〈교내 논술문쓰기대회 - 금상〉

조기 유학,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

3학년 1반 송인영



기러기 아빠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생소한 말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를 먼 이국땅에 보내고 술과 담배에 지쳐 외로워하는 이 시대의 기러기 아빠들은 이미 그 수가 상당하다. 왜 그들은

자식들을 보내고 쓸쓸해 하는 걸까?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아빠로서 그 정도는 이겨 낼 수 있다는 회생 정신에서일까? 여기서 우리는 기러기 아빠를 만들어 낸 범인을 찾을 수 있다.

현대 한국사회는 뜨겁다 못해 과열된 경쟁체제가 한창이다. 기업과 직장은 물론이요, 어린 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없다. 70년대, 80년대의 가난하지만 친구와 함께해서 즐거운 학교의 모습은 이미 부식진지 오래다.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삶의 뜨거운 경쟁을 체험토록 하는 사회의 축소판으로 전락했다. 이런 사회, 내가 살아남지 못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부모들이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 자신의 자녀를 최고로 키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더 잘해야 하고, 한 발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머금고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지나친 욕심과 걱정이 이 시대의 아빠들을 고독한 기러기 아빠로 내몰고 있다.

아이의 인생에 있어 플러스포인트를 준다는 조기유학의 내면적 문제점은 단지 기러기 아빠의 죽음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의 교육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잃어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먼저, 모국어를 완전히 익히지 못한 채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자기 나라의 언어체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어를 배우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미 많은 과학자들은 모국어를 완전하게 익히는 나이가 지난 후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국어와 외국어 모두 미숙하여 어중간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기 교육의 단점은 언어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문화면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유학생들의 어려움이 크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경우,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또래 친구와 학교생활에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그 나라의 생활방식에 이미 길들여져 한국의 문화, '한국다

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공존하며 소통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조기 유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족'이라는 의미를 잃어가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가족이라는 집단은 단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표면적인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다. 서로 화합하고 함께 활동하고 곁에서 지켜주는 그런 끈끈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녀를 유학 보낸 가정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아이의 정서 발달에는 물론, 남겨진 부모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과연 조기 유학의 성과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대신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렇다면 과연 조기 유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의 노력과 정부의 노력. 먼저 우리의 인식을 바꾸자.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과연 자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즉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에 유학을 보내야 한다는 말이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기대를 버리는 자세도 필요하다. 또한 만약 유학을 보내야 한다면 온 가족이 모두 함께 가도록 한다. 그러면 자녀가 건강한 유학 생활을 하는데 드는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조기 유학이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도 원어민 타운처럼 외국어를 배우고 직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도 원어민 수업시간을 필수화 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도 외국어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많은 부모들이 굳이 유학을 보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무한경쟁시대에 발맞춰 자녀를 위해 선택한 길 조기유학-정말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가슴은 독서의 계절 이런 독후감은 어떨까?

행복한 왕자를 읽고 나서

2학년 12반 류현지

나는 가슴으로 보고 싶다.
남몰래 떨어지는 어머니의 눈물을,
집 없는 아이들의 슬픈 눈망울을.

나는 가슴으로 듣고 싶다.
빈곤한 자들의 구슬픈 흐느낌을,
술 취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하소연을.

나는 가슴으로 느끼고 싶다.
매질에 움츠러든 소녀의 두려움을,
밥 없는 이들의 가슴 아픈 배고픔을.

나는 가슴으로 보듬고 싶다.
모진 세상에 상처받은 이들을,
그들 모두의 빠져린 아픔을.

소나기를 읽고 나서

1학년 7반 이예림



산문부문 금상

백년 후에도, 천년 후에도 살아남은 ‘처음’이 되어라

신목중 3-6 강수현



서기 2020년 3월 23일, 피카소와 괴테가 오늘을 살았다면 멋진 작품이 탄생할 만한 쾌청한 아침이다. 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UN관련 부서에 있는 강수현이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작권 폐지 법률의 통과 여부일 것이다. 토스트 로봇이 구워준 빵을 입에 물고 텔레비전을 켜니 저작권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행진하며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는 장면이 나왔다. 인류가 발달하고 기술과 과학이 순식간에 발달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인간은 제2차 정보화 혁명을 발생시켜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 사람들은 자유 무역 협정과 같은 자유로운 정보 사용을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어제 밤에 본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저작권의 폐지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주제로 열띤 논쟁이 오갔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작권 폐지를 찬성하는 여론은 정보가 필요로워졌으므로 그 정보가 법에 얽매이지 않고 공유되고 재창조 될 수 있으니 방해요소인 저작권을 폐지하자 주장했고 그 반대의견은 저작권이 보장되어야만 창작 활동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어느 신드롬과 같이 저작권 폐지 운동은 사회 전체에서 세계 전체로 퍼져나갔고 지난 2월, 각국의 정상들은 자신이 속한 대륙에서 먼저 협의하여 5대륙의 대표가 UN 회의장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로 협의하였었다.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긴급회의가 열렸다. 20여년 간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 문제가 세계적인 회담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외교 통상부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5국 정상들의 회담이 끝난 후 전자 투표를 통해 결

정이 났다. 그리고 2020년 3월 3일 5시, 전세계에서 동시에 저작권 관련 법률이 폐지되었다. 물론 저작권의 폐지는 자유로운 정보사용의 보장이지만 과연 이런 자유가 인류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큰일을 마치고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는데 소포가 하나 배달되어 왔다. 며칠 전 부탁을 받아 한 대학에 강의의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리포트였다. 첫 리포트를 꺼내어 보았다. 한 장, 두 장....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군. 거의 흠잡을 곳이 없어.’ 흠족한 마음으로 다음 리포트를 집어 들었다. 또 한 장, 두 장.... 그런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어서 그 전 리포트를 들춰보니 이렇수가,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다. 사이사이에 보충하는 문장이 몇 개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똑같았다. 그 다음 리포트도, 그리고 그 다음도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학생들의 생각이 없는 종이몽치 숙제들 앞에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즐비한 자판에 엄청나게 많은 영화 복사 CD와 음반 CD가 있었다. 저작권법이 실행되었을 때에만 해도 적발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버젓이 CD를 구워 팔고 있었다. 영화관에 도착하니 상영중인 영화는 단 3편뿐이었다. 그나마 그 3편도 곧 막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영화관에서 나와 코너를 돌아 서점에 들렀다. 그러나 역시 서점도 책보다 책을 복사한 복사본이 진열되어 있었고 책을 사는 사람 중에 원판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혹시나 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 그 훌륭한 리포트들은 역시 하나의 전문 게시물이 여러 학생들에 의해 복사된 것뿐이었다. 자신의, 나만의 생각을 써오라는 것이 창조적 생각이 꽃피는 학생들에게 그리 어려운 것이었나? 아니면, 다만 학생들조차도 지식의 바다에 휩쓸려 갈 곳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일까? 열정과 생각과 시행착오가 담긴 소중한 과제가 아니라 단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나버린 허무한 글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에, 그리고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이 저마다의 생각의 결실로 인류의 나무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속이 텅 빈 껍질뿐인 과일이 볼품없이 매달려 있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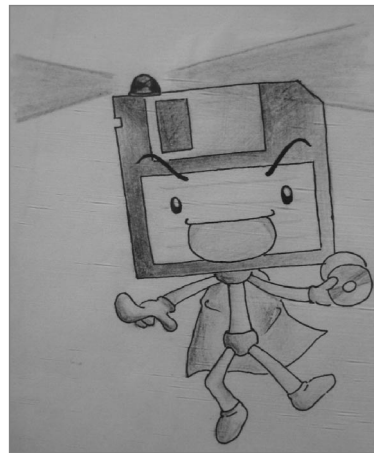
않을까하는 마음에 착잡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텔레비전을 켜보니 한 영화감독의 자살 사건이 보도되었다. 무단복제에 무너져가는 영화산업을 차마 볼 수 없어 이 길을 택했다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우리들의 자유가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저작권의 폐지는 내일의 피카소, 괴테, 스티븐 스피버그를 죽이고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결국 인류는 자유라는 허황된 이름으로 제 자신을 가두어 발전하지도 퇴보하지도 못하는 피비우스 띠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었다. 사람이 사회라는 집단에 살아가면서 진보적이고 원활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할 진리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노력의결실은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간들의 착각으로 창조의 새싹을 짓밟은 것이다. 이 멋진 밤하늘도 하늘의 저작권이 적용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도 다른 누구도 똑같이 복사할 수 없기에 더 아름다운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일기는 2020년, 저작권이 없어지고 지식과 정보에 있어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본 글이다. 요즘에는 영화와 음악 등 창의성이 중요시 되는 분야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많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친구에게 책을 빌려주는 것과 비슷하며 계속 저작권을 주장하면 자유로운 재창조와 재해석을 제한한다는 의견과, 사회에서는 적당한 제한과 보장 아래 올바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의 갑론을박은 그 어느 한 쪽도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인 문제로는 뮤지션들이나 영화 제작자들도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혼을 담은 작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 아무런 재정적인 대가가 없다면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에 바빠 제대로 된 창작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자신의 작품이 여기저기 복사되어 퍼진다면 일종의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금전적인 이익이나 손해보다 더 우려되는 점은 모방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담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들을 무시해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쏟아지는 정보가 우리들의 눈을 흐려 복사에 복사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난 모든 사람들이 '처음'이 되었으면 한다. 아크로폴리스의 신전처럼, 하나하나의 개성처럼 무엇인가의 처음이 되었으면 말이다. 몇 천 년 후에도 몇 만 년 후에도 살아남는, 그런 처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 똑같은 보석이 똑같은 가공을 거쳐 가득히 담겨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보석이 제 모습을 빛내는 하나의 보석상자보다 더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보석들이 제각기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보석의 개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도 저작권이라는 보호 아래 자신의 창작물을 인정받고 더 나아가 모방과 재창조를 통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백년 후에도, 천년 후에도 살아남는 처음이 되어라'



저작권 학생경연대회 캐릭터부문 동상

3학년 2반 노영민

이름 : 뽀지

특징 : 플로피디스크모양 머리, 어떤 저작권 범죄든지 찾아내는 푼망푼망한 눈.

저작권 범죄와 피해가 늘어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서 불법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발해 내는 든든한 친구

변해도 너무 변했다? -현대판 백설공주, 흑설공주를 읽고-

3학년 1반 송인영

“백설공주의 혀와 간을 도려내어 내게 증표로 가져오너라.”

눈꼬리가 올라간 마녀의 시뻘건 웃음은 가라? 순수하기만 할 뿐 무능력한 백성공주와 딸을 못잡아먹어 안달난 계모의 자리를 밀어낸 폭부러진 흑설공주와 왕비는 현실에서 툭 튀어나온 듯하다. 지금부터 현대판 백설공주, 흑설공주의 나라로 들어가보자.

우선 180도 달라진 계모부터가 색다르다. 하루종일 요술 거울 앞에서 뽀내기만 하는 마녀 왕비가 아닌 현명하고 자애로운 왕비의 모습은 좀 독특하다. 자신이 배앓이하여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제 자식 못지않게 사랑으로 기르는 어머니들의 모습도 반영한 듯 싶다. 무엇보다도 흑설공주의 새어머니는 비정상적으로 딸을 증오하고 시기하는 고전적 의미의 계모에서 탈피했다는 점이 다소 현실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또 다른 이색적인 재미는 바로 흑설공주의 성격이다. 추태를 부리는 헌터 경에게 당당히 호통을 치고 양칼지게 얼굴을 할퀴기도 하는 흑설공주는 순순히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는 눈물 많은 백설공주보다 한 수 위인 듯 싶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이상형이다. ‘나와 결혼할 분은 늙고 못생긴 사냥꾼이 아닌 멋진 왕자님일 거예요.’라고 공주는 말한다. 흑설공주도 소위 말하는 ‘신데렐라 신드롬’을 피해야 할 만한 모양이다. 이름의 뜻처럼 ‘매력적인’ 프린스

차밍을 기다리는 흑설공주나 재벌 2세와의 운명적 만남을 기다리는 이 시대 여성의 환상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듯싶다. 우리 이모를 쏙 빼닮은 흑설공주의 모습은 동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현실적 요소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다.

여성의 지위와 힘을 상승시킨 것도 재미있다. 제 몸을 꾸미는 것에만 급급한 추악한 마녀에서 위험을 예견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왕비로 바뀌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당찬 흑설공주, 또 난쟁이가 왕국의 우두머리 또한 ‘여왕’이라는 점은 지은이가 더 이상 나약하지 않은 많은 여성들의 모습을 얼마나 의미있게 잘 반영했는가를 느낄 수 있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밖에 여자를 소유하고 힘으로 지배하려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남성들의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혼인’을 통해 신분상승의 꿈을 이루려는 욕망들도 모두 현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었기에 이 동화는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빛 바랜 이야기를 현실이란 거울에 비춰 재조명한 흑설공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를 이 동화를 나는 우리 부모님께 권해드리고 싶다.

“엄마, 아빠, 흑설공주 이야기를 아세요?”



책 소개

바바라 G. 워커의 <흑설공주 이야기>



이 책에서 우리는 용감하고 재기 발랄한 여자들이 그 동안 남자에게만 열려 있던 모험의 세계로 떠나며, 여성들이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는 공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성취하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책 속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삶을 살아가는, 14명의 여성들이 등장한다. 백설공주, 개구리 왕자, 인어공주, 알라딘 등 익히 우리가 알고 있던 동화 속 주인공들이 약간씩 모습을 바꿔 등장한다. 즉, 이 책에 수록된 이야기들은 어린 시절 우리가 읽었던 동화들을 다채롭고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각색한 것들이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공주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통일문화 행사를 마치며

3학년 4반 인지현

10월 11일 홍사단과 함께한 ‘놀이로 배우는 통일교육’을 끝으로 길었던 신목중학교 통일문화 행사가 끝났습니다.

철학적 논의를 떠나 다른 현실을 이루어보자는 말이 현실이 되어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행사가 되었다는 게 아직도 흥분이 가시질 않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할 걸…….’ 하는 아쉬운 마음과 함께 신목중학교 학생들에게 이 행사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평소 통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2학년 때부터 통일 토론 대회나 통일에 관한 많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도 정리해보고 하던 중 방과 후 수업(철학적 사고를 위한 논술 토론반)의 지도교사이신 하운영 선생님께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주최하는 통일행사의 문제점과 선뜻 다가서기 힘든 어려운 면들을 빼고, 쉽고 재미있는 통일문화 행사를 우리가 직접 기획해 보는 게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대화 끝에 ‘우리는 친구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이나 당위성을 내세운다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사실적이고 본질적인 정보를 흥미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통일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거나 자신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자.’는 취지가 설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2번 정도의 토론을 더 거친 후 본격적인 기획과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행사, 북한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재의 북한교과서, 그리고 남북갈등을 다루기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용까지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어디에 전시를 할 지부터 영화 상영을 위한 저작권으로 인해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북한 교과서 전시 때문에 교과서를 구하러 광화문까지 가서 북한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교과서들을 구해오고, 전쟁사진을 전시할 때는 책을 그대로 찢었기 때문에 출판사에 연락해서 허락을 요하는 전화도 했고 전시회는 어떻게 사진을 배치해야할지 상영회의 나레이터는 누가 하며 설명은 또 어떻게 해야 할 지 정말 많은 난관의 연속이었지만 우리들 모두 많은 신목인들이 보지 않아도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데에서 그 의미는 이미 충분하

다는 자부심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전시회용 사진을 벽에 붙이고, 미래공존 상상도에 쓰일 만화화 확대복사하고, 신목학생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관심을 갖고 봐주면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상영회에도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주었고 많이 걱정했던 다큐멘터리 설명도 무난하게 끝났으며 마지막으로 홍사단 놀이 교육도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항상 멀고, 낯설었던 북한에 대해서 아직 미숙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나라를 알린다는 것이 조금은 겁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를 통해 많은 신목중학교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위화감이나 어색함을 줄이고 북한에 관한 궁금증이나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통일 캐릭터 ‘티움이’ 배지를 달아주는 모습

티움이



통일문화행사를 같이 고민하고
기획하고 진행한 친구들은

3학년 1반 이승연,
3학년 4반 김송이, 인지현, 최유현,
3학년 5반 김선영,
3학년 17반 박상희,
3학년 18반 김창선입니다.

P2P 사용, 과연 이대로 좋은가?

2학년 12반 이가림, 손진영

지현근, 박진성, 이선정

P2P란? [peer to peer]

Peer는 '응시하다', '동료'라는 뜻으로, P2P란 인터넷을 통해 각자의 컴퓨터 안에 있는 음악파일이나 문서·동영상 파일 등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일반적인 인터넷 자료실이 특정 서버(대형컴퓨터)를 통해 불특정다수가 올린 자료를 다시 불특정다수가 내려받는 형태인데 반해 P2P는 인터넷에 접속한 네티즌 개개인의 PC를 직접 검색, 저장된 자료를 1대 1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P2P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는 P2P뿐 아니라 정보산업 전체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그밖에 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의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 지원 등도 과제로 남아 있다.

반

P2P는 몇몇 사람에게는 이익 혹은 편함을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일반인 혹은 신인가수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저작권자에게 있어 P2P는 폭탄인 셈이다. 다시 말해 P2P는 양면의 얼굴을 가진 것이다. 나는 P2P 사용에 반대한다. P2P가 개인간의 공유를 뛰어넘는 것이 된 이상, 더 이상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신인가수들에게는 기회가 된다 할지라도 다른 가수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뿐더러, 신인가수들이 유명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들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즉, P2P를 이용해 유명해지려는 생각은 단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가수들의 저작권이 침해됨에 따라 그 가수들이 속한 회사 역시 덩달아 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개발하는 회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P2P이용자들뿐이다. 이를 보면 P2P는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P2P를 어떻게든 막든지, 아니면 요즘의 소리바다나 벅스 뮤직처럼 일정 금액을 지불해 저작권자에게 가는 형식으로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가림)

찬

P2P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자료를 찾을 때 무척 편리하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무명 가수들도 자신의 곡을 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음악을 다운받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하지만, 노래가 정말 좋다면 그 앨범을 사면서 MP3에 받을 수 있는 파일도 다운받는다.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없는 소설이나 UCC등을 찾을 때도 편리하기 때문에 난 P2P 사용에 찬성한다. (손진영)

반

P2P는 정말 편리하다. 노래, 동영상, 게임까지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저작권이 계속해서 침해가 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로또파일'은 저작권 보호 기간 동안(영화 상영기간)은 그 파일을 다운 받지 못하게 하여 그나마 저작권을 보호해주고 있는 태세이다. 하지만 당나귀, 프루나 등 공짜 P2P에선, 영화가 상영되기도 전에 영화가 나와 있는 등,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저작권 침해를 보이고 있다. 나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반대이다. 편리하게 영화를 볼 수도, 사건도, 노래도 다운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작가의 이름이나 제작자의 명성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한에서 P2P 사용은 계속 되어야 될 것이다. (지현근)

찬

P2P는 아주 편리한 다운로드 파일이다. 우리에게 아주 편리하게, 싸게, 빠르게,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아주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저작권 침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굳이 저작권 침해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박진성)

반

나는 P2P에 대하여 반대한다. 물론 P2P에 밝은 면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P2P는 저작권을 침해한다. P2P의 밝은 면은 사람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공유를 많이 해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료 속에는 자신이 순수하게 제작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작권을 침해해서 가져온 자료들도 있을 것이다. 혹여나 자신이 순수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료를 저작권을 침해해 가져갈 수도 있다. 또한 이렇게 사람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다 보면 당연히 제작자의 의욕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P2P를 제지하고 사람들에게 대해 좀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키고 저작권을 지키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선정)



나의 진로에 맞는 고등학교는?

3학년 오민영 기자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3 학생들은 자신의 장래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자신의 적성과 성격, 흥미 등을 고려해서 진로 계획을 세우고 그에 알맞은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좋은 계획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전문 분야의 고등학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관광고등학교

서울관광고등학교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 관광고등학교는 <미래 세계관광 산업의 CEO 육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관광경영, 관광이벤트, 관광조리코디, 관광홍보미디어의 4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광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해 3품 제도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품 제도란, 관광전문인으로서의 인성과 태도, 세계관광산업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관광전문능력의 3개 영역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학교의 방침입니다. 입학 후 졸업할 때까지 3품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졸업의 필수요건입니다. 예절 분야에서는 예절 교육원에서의 이수증, 외국어 분야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제2외국어 외부공인시험에서의 일정 기준을 넘는 성적, 전문 분야에서는 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통역안내사, 컨벤션 기획사, 레크레이션지도사 등의 국가공인자격 2종목을 취득해야 합니다.

조리고등학교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조리 분야의 과학고등학교입니다. 도덕적이며 창의적이고 건강한 21세기 국제조리전문인 양성이 학교 교육목표입니다. 조리에 필요한 직업적 전문지식, 전문조리 기술, 직업적 가치관 및 조리 정신, 외국어 능력, 조리개발을 위한 창의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 현장중심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매우 심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립형 자율학교입니다. 2006 서울 국제 음식 산업 박람회 등 권위 있는 대외 조리 대회에서의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호텔요리사 등이 꿈인 학생들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미용고등학교

정화미용예술고등학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정화미용예술고등학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정화미용예술학교를 모태로, 정직·봉사·창조 정신의 교훈 아래 미용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년 6학기제로, 교육과정 2년이면 국가시험 없이 미용사면허증을 졸업과 동시에 취득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56년의 역사로 노하우를 가진 정화미용예술학교가 직접 교육하며, 고등학교 2년 전 문대학교 2년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미용교육을 실시합니다. 인문공통교과 50%와 미용교과 50%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학생들은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예비미용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전국 미용인 경진대회 전부분 수상의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고등학교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영상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로, 세계화 시대의 영상관련 분야에 펼쳐질 미래 산업의 첨병으로 밀레니엄 시대를 이끌어갈 영상 전문인 육성이 목표입니다. 만화창작, 애니메이션, 영상연출, 컴퓨터 게임 제작의 4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영상분야에서 보다 기술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스튜디오와 조정실, 음향실, 프로그래밍실 등의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학급당 25명을 정원으로 학생중심교육과 산학연계교육, 국제 이해 교육, 지역사회 연계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의 교육을 통해 대외 수상 경력은 물론, 대학 진학 실적도 매우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 학교입니다.

세상에 이런 박물관도 있었어?



3학년 김다은 기자



박물관. 당신은 어떤 장면이 연상되는가? 생전 처음 보는 글씨와 싯덩이들이 “너희들이 나를 알아?” 이러한 표정으로 쏘아 보는 장면이 연상되는가? 그럼 내가 이번 기회에 당신의 박물관에 대한 생각을 바꿔 주겠다. 모든 전시물이 “나랑 같이 놀자~!” 이런 표정으로 웃고 있는 박물관, 여기서 소개하겠다!

1. 말 그대로 별난 물건 박물관!



이곳은 집안에 있는 놀이터라고 해도 좋을 듯싶다. 박물관 이름과도 똑같이 박물관 자체도 별난지라 뚜렷한 주제가 없는 박물관. 하지만 이름처럼 별난 것들만 모으고 또 모았다! 누워서 텔레비전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안경. 마음에서 생각한 숫자를 맞추는 공. 손으로 들지 않고 쓰는 우산. 독특하지 않은가? 독특한 녀석들만 골라 골라 모아놓은 박물관! 개성 강한 신목인들에게 추천한다.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 떡 부엌살림 박물관



사람들이 흔히 우리 나이를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고 부르더군. 그래서 준비했다! 보는 내내 진열장을 깨고 들어가 전시물을 먹고 싶게 느끼도록 하는 박물관! 바로 떡 부엌살림 박물관이다. 여러 종류의 떡과 음식, 그리고 조리기구들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집과 같은 느낌이 들어, 친근하게 다가가서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 보는 내내 군침 흐르게 하는 박물관! 이곳을 관람한 뒤 먹는 밥은 얼마나 꿀맛인지 우리 신목인들이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 롤링 볼 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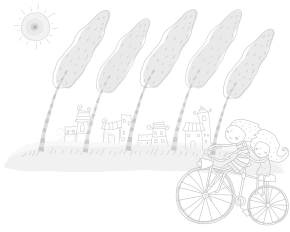


혹시, 기억나는가? 어릴 적 부모님 손잡고 놀러 갔다가 껌을 뽑아 먹던 껌 볼 기계를. 내 입보다 큰 구슬 모양의 껌이 꼬불꼬불한 트레일을 타고 내려 왔었지. 그런 꼬불꼬불 특이한 트레일만 모으고 모아보았다. 직접 트레일을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과학적인 원리를 알 수 있는 박물관! 책상에 앉기만 하면 잠이 와도, 놀 때는 눈이 동그해지는 신목인들! 그 친구들에게 이곳에서 물리를 공부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 추천해 본다.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잘 보았는가? 생전 처음 보는 해괴한 문자들과 싯덩어리가 ‘너희들이 나를 알아?’ 하는 표정으로 쏘아보는 여느 박물관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가진 이색적인 박물관! 이런 박물관을 다니면서 세상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느끼고, 박물관과 좀 더 친해지길 바란다.





가을 향기 무성한 여행지를 찾아서

3학년 홍율아 기자

풍성한 계절 가을이 찾아왔지만, 아직까지 일상에 지쳐 그 아름다움을 알아채지 못한 당신을 위한 가을맞이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신목 중학교 학생들이 가족과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서울 근교의 해여림 식물원과 파주 헤이리 예술 마을이 바로 그곳입니다.

해여림 식물원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에 위치한 곳으로, '온종일 해가 머무는 여주의 아름다운 숲'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2년여밖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요, 이미 도자기 생산지로 유명한 여주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한창 계절을 맞아 고운 빛을 낼 수목원의 가을 풍경뿐만 아니라, 사계절 모두를 감상하실 수 있는 테마별 정원이 있으니깐요. 특히, 가족 소풍을 오기에 좋은 만한 너른 잔디밭도 있으니 온가족이 돛자리 위에 둘러앉아 김밥을 먹는 단란함을 즐기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곳곳에 생태체험학습을 위한 장소와 자연미 넘치는 산책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여림 식물원은 서울에서 중부고속도를 타고 가다가, 곤지암IC에서 나와서 98번 국도를 타고 양평 쪽으로 가신 뒤, 신북면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시면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haeyeorim.co.kr>)와 전화(031-882-1700)를 통해 더 얻으실 수 있습니다.



파주 헤이리 예술 마을

헤이리 마을은 파주에 위치한 또 다른 명소 영어마을 덕인지, 이미 입소문이 나 사람이 북적대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시설로 유명한데요. 귀여운 캐릭터 딸기가 맞아주는 '딸기가 좋아' 전시관, 부모님의 향수를 자극할 태권브이 캐릭터 피규어부터 우리가 잘 알 만한 스파이더맨, 토토로 등의 최근 만화 주인공까지 총망라한 씨네펠리스, 80~90년대 거리를 재현해 놓아 신목인에게 신선할 법한 20세기 소년 소녀관, 이 외에도 각각의 개성이 넘치는 갤러리 카페와 마음을 살찌울 수 있는 북카페가 여럿 있어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헤이리 마을은 자유로를 통해 '통일전망대' 근처인 일산 이산포IC를 거쳐 성동IC로 빠져나와 '예술마을 헤이리' 이정표를 따라 우회전하면 됩니다. 이어 성동사거리로 진입해 좌회전하면 헤이리 1번 게이트, 4번 게이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http://www.heyri.net/>)와 전화 문의(031-946-8551~3)를 이용해 주세요.

화페박물관



• 회원/박용문 / 건축가:최욱
• 031-949-6592

씨네펠리스



• 회원/우경옥 / 건축가:최욱
• 031-957-7763

북하우스



• 회원/김건호 / 건축가: shop, 김준성
• 031-949-9303

딸기가 좋아



• 회원/샘지 / 건축가:최문규, 조&siade
• 031-957-0638

신목인의 금요일 아침

2학년 김종인, 김진모, 김연우 기자

우리는 여태까지 적게는 7개월부터 많게는 2년 7개월 동안이나 신목중학교의 교복을 입고 신목 중학교에 다녔다. 이렇게 꽤나 오랜 시간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가 터득한 것은 금요일 아침 자습시간에는 선생님들께서 회의를 하신다는 것! 따라서 금요일 아침자습시간에는 윤독도서를 읽거나 공부를 하는 등 정말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 안타깝기도 하였다. 매주 금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8시 50까지 20분간, 하루를 시작하는 상쾌한 아침자습시간의 풍경을 취재해 보았다. 그 유형들은 매우 다양하였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부터 창문 밖을 쳐다보며 사색에 잠긴 학생, 자고 있는 학생부터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학생, 심지어는 화장실과 복도를 활보하는 학생들까지. 좋게 말하면 매우 다양하고 자유로운 신목인들의 아침자습시간을 더욱 깊숙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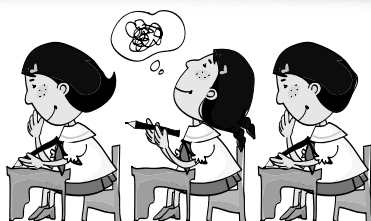
☞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면 난리 날 품으로 쉬고 계시군요. 개인적으로 빨리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람도…….



☞ 할 일 없이 복도를 활보하는 발랄한 뒷모습이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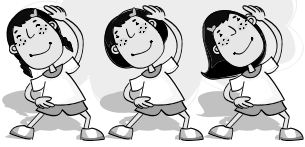


☞ 지각 후 교실로 들어가는 표정들이 다 왜 그러신가요? 힘내세요!



☞ 어느 반에나 있죠? 하루 종일 거울 앞에 붙어있는 여학생들(또는 남학생들).





☞ 해변의 여인을 그리시나요? 아름다운 그분을 바라보나요?
꿈은 깨질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군요.



☞아, 세상이 고요하도다, 만사가 편하도다.



☞여자친구가 없어도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사실
은 오락 중.



☞풀어도 풀어도 계속 틀리는 문제가 우리를 고뇌하게 만드
는군요.



☞몰래 매점에 온 건 정말 죄송해요!

우리는 아침자습시간에 여러 모습의 신목인들
을 만날 수 있다. 지각을 해서 운동장을 돌고 있
거나 쓰레기를 줍고 있는 학생들, 구기대회 연습
으로 한창 발야구나 풋살 연습을 하던 학생들,
교실에서 조용히 자습을 하는 학생들 등등. 쉬는
시간 10분도 잘 활용을 하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듯이, 아침자습시간 20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 있는 시간이다. 매일 아침 20분 동안 독서
를 한다면 우리는 풍부한 지식과 폭 넓은 사고를
가질 수 있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면 그
날 하루를 보람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이다. 금요일 아침,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방황하지 말고 자습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
도록 노력한다면 1년 후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을
까?

촬영에 협조해 주신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는 얼마나 상식적인 사람일까?

2학년 이지선 기자

객관식



1번) 다음 중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은 무엇인가?

- ① 국방위원회 ② 최고인민회의
- ③ 중앙재판소 ④ 당 서기국

2번) 프랑스어로 존경, 경의를 뜻하는 말. 영화에서 후배 영화인이 선배 영화인의 기술적 재능이나 그 업적에 대한 공덕을 칭찬하여 기리면서 감명 깊은 주요 대사나 장면을 본떠 자신의 영화 속에 표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 ① 오마주 ② 미장센
- ③ 클리셰 ④ 몽타주

3번) 강하게 불기 시작해 갑자기 멈추는 바람과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으로 공기의 일부가 상승해 비가 내리는 것으로 열대지방에서 거의 매일 오후에 나타나는 소나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① 스콜 ② 여우비
- ③ 개부심 ④ 도둑비

4번) 다음 중 관세 철폐뿐 아니라 투자, 인적교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폭넓은 분야에서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맺는 협정은 무엇인가?

- ① 경제연대협정(EPA)
- ② 자유무역협정(FTA)
- ③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 ④ 최혜국대우(MFN)

5번) 식품위생법 상 허가된 첨가물인 '안식향산나트륨'은 주로 식품료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다량의 복용 시 운동기능과 판단력 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이 물질의 용도는 무엇인가?

- ① 착향 ② 착색
- ③ 방부 ④ 감미

6번) 취업에 부담을 느껴 방학 중에도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 자격증 취득 등 실 틈 없이 학업 외 활동에 집착하는 대학생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① 공시족 ② 나토족
- ③ 글루미족 ④ 공휴족

주관식



1번) 다음 설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색깔은 무엇일까요?

- 수사기관 등에서 감시가 필요한 위험 인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문서
- 항공기 안에 비치하는 비행자료 자동기록장치

2번) 기름이나 장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름지지 않은 땅에서도 가꿀 수 있어 기근이 심할 때 주식대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생육기간이 짧은 조, 피, 기장, 메밀, 고구마, 감자 등이 이에 속하는데요. 이런 작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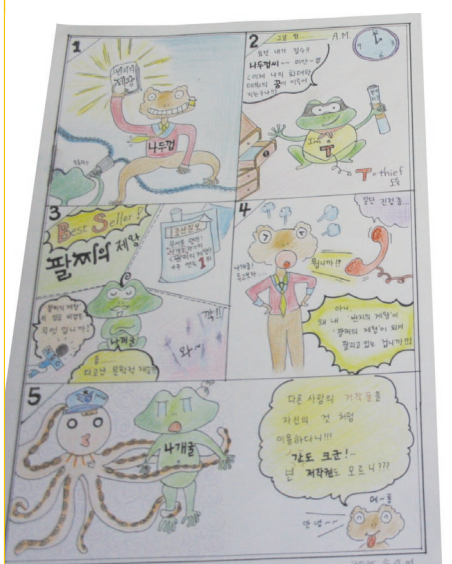
3번) 000섬은 그리스 반도에서 떨어진 에게해 한복판의 작은 섬이다. 페르시아 전쟁후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폴리스간의 동맹이 결성되었을 때, 공동의 군자금을 관리하는 금고를 이곳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000 동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000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4번) 일반사면은 대통령이 ()의 동의를 얻어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 전부를 소멸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안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ㄱ ②-ㄴ ③-ㄷ ④-ㄹ
 ⑤-ㅁ ⑥-ㅎ ⑦-ㅑ ⑧-ㅒ
 ⑨-ㅓ ⑩-ㅔ ⑪-ㅕ ⑫-ㅖ
 ⑬-ㅗ ⑭-ㅛ ⑮-ㅜ ⑯-ㅠ
 ⑰-ㅡ ⑱-ㅣ ⑲-ㅍ ⑳-ㅑ ㉑-ㅓ ㉒-ㅕ ㉓-ㅗ ㉔-ㅛ ㉕-ㅜ ㉖-ㅠ ㉗-ㅡ ㉘-ㅣ

가끔은 공부나 컴퓨터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런 상식 한번 퀴즈보는 건 어떨까요??

저작권 관련 학생작품 경연대회 수상작



만화부문 금상
3학년 1반 송인영



캐릭터부문 금상
3학년 16반 이순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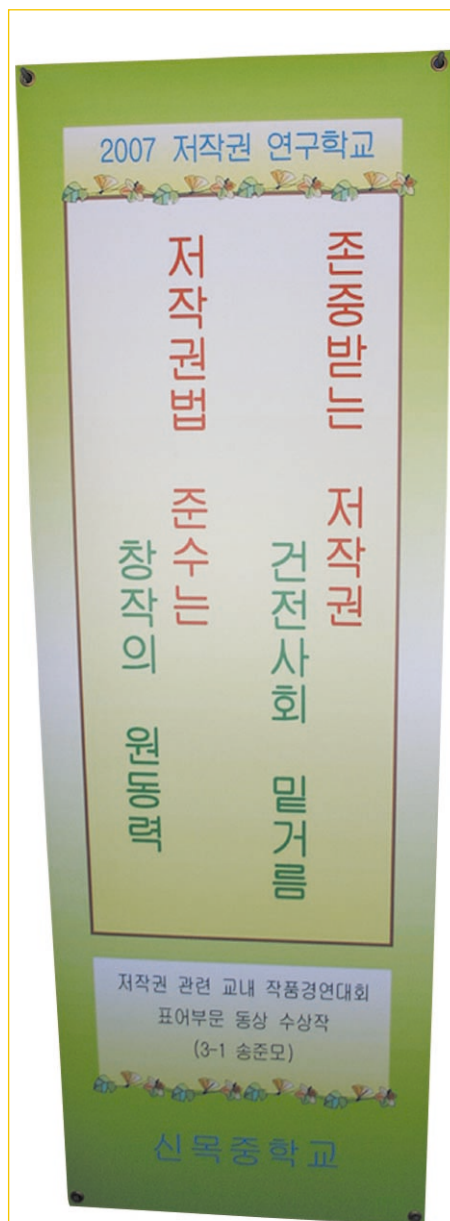
만화부문 은상
1학년 14반 김민지



포스터부문 은상
1학년 1반 권순지



캐릭터부문 은상
3학년 6반 김동주



표어부문 동상
3학년 1반 송준모

저작권 관련 학생 경연대회 모습



저작권 관련 행사



논술문 쓰기대회



통일문화 행사



체육대회

